

# 민주, 3지대와 연대 추진...안철수·김동연에 러브콜

### 당 통합·여권 통합 이어 중도·부동층 공략 위한 카드 실행 가능성은 전망 엇갈려

더불어민주당이 열린민주당과의 통합 등 여권 대통합에 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김동연 새로운 불결 대선 후보 등과의 '제3지대' 연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양자 대결이 연일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중도·부동층 공략을 위한 승부수를 던져 확실한 우위를 점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김동연 후보와의 연대는 가능할 수 있지만 안철수 후보와의 연대는 정치적 거리가 크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는 전망이 우세하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26일 언론 인터뷰에서 안 후보에 대해 "국가발전에 필요한 분"이라면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보다는 이재명 후보와 결합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새로운 불결 소속의 김 후보에 대해서도 통합 대상이라고 했다. 이는 정치공학적인 측면에서 중도·부동층 공략을 위한 카드로 풀이된다.

현재 이 후보의 지지율은 윤 후보와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이는 윤 후보의 지지율 하락에 의한 것이며 눈에 띄는 상승세 없이 박스권을 오락가락하는 양상이다.

특히, 차기 대선이 정책 및 인물 대결 보다는 가족 논란 등 네거티브 양상을 보이면서 부동층이 급증하고 있어 이들의 표심을 흡수할 여지가 있는 제3지대의 가치가 주목받고 있다.

실행 가능성에 대해서 전망이 엇갈린다. 안 후보의 경우 과거 민주당과 합당해 새정치민주연합

을 만들었다가 친노·친문계와의 극심한 갈등 끝에 갈라선 전력이 있는데, 여전히 친문 세력이 주류인 민주당과 다시 손을 잡을지가 미지수인 상황이다. 만약 안 후보가 민주당과 손을 잡는다면 호남 지역 의원 복당 허용 방침과 맞물려 2015년 분당 전 새정치민주연합 시절 모습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있다.

김 후보도 민주당이 이미 지난 4·7 재보선 때 서울시장 후보 영입 가능성을 타진했으나 불발된 바 있다. 일각에서는 김 후보와의 연대 가능성은 크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함께 했던 김 전 부총리가 함께 한다면 이재명 후보에게 부족한 안정감을 보강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국민의힘 선대위가 내용에 휩싸인 틈에 민주당이 제3지대 후보들에게 선제적으로 손을 내밀어 판을 흔들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만 속 빼놓고 연대를 추진한 것도 이를 반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후보측도 이런 기류에 공감하는 듯한 흐름이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이 후보가 당내 통합, 여권 통합에 이어 내년에는 미래와 경제, 위기 극복 행보를 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서는 이에 동의하는 모든 사람과 같이 가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난달 25일에도 안 후보에 대한 연대 제안 설 등에 대해 "정치는 생물이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여운을 남긴 바 있다.

다만 이 후보는 이날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송 대표가 안 대표와의 협력 가능성을 상의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며 "아직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거리를 뒀다.

한편, 민주당은 장외의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해찬 전 대표, 박영선 전 중소기업벤처부장관 등이 잇따라 나섰고 이낙연 전 대표까지 등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양당 통합 합의문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협상대표 강홍식, 이상호, 송영길 대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협상대표 정봉우, 김의겸. /연합뉴스

하면서 당내 통합은 일단락한 상황이다. 여기에 이날 송 대표와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당 대 당 통합 합의문에 서명했다. 양당은 당원 투표 등 내부 추진 절차를 거쳐 내년 중순께 통합을 완료할 계획이다. 여기에 과거 분당 등 이유로 탈당한 사람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복당을 허용키로 하는 등 여권 대통합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권 대통합에 이은 제3지대 후보와의 연대 카드는 내년 1월부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 확실한 우위를 점하겠다는 전략적 카드로 보인다"며 "하지만 제3지대 연대 카드는 현실성이 떨어지고 보수 결집도 부를 수 있어 효과는 미지수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 문 대통령 오늘 대기업 총수 오찬 이재용 가격방 뒤 첫 대면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 정부의 민간합동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인 '청년희망 온(ON)'에 참여한 대기업 대표들을 청와대로 불러 오찬 간담회를 한다. 참석 대상은 이 부회장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최정우 포스코 그룹 회장, 구형모 KT 대표 등이라고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이 26일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있어 대기업들의 역할을 당부하기 위한 자리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이 가장 최근 대기업 총수들을 만난 것은 약 6개월 전인 지난 6월로, 당시에는 최태원 회장, 정의선 회장, 구광모 회장 등과 오찬을 했다. 특히 이 부회장의 경우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된 뒤 지난 8월 가격방으로 출소한 이후 문 대통령과의 처음으로 만나는 것이어서 눈길을 모은다.

청년희망 온 프로젝트는 올해 8월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하고 국무총리 주재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심의·확정한 '청년특별대책'의 일환으로,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직접 교육·채용하고 정부가 훈련비용 등을 지원하는 방식의 협력 프로젝트를 말한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

## 김건희 "잘 보이며 경력 부풀렸다...모두 제 잘못"

### 허위 이력 논란 대국민 사과 "남편 대통령 돼도 부인 역할만" 민주 "국민 의혹 해소 안돼"

허위 이력 논란을 빚었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26일 대국민 사과를 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허위 이력 논란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를 했다.

윤 후보의 대선 출마 이후 김씨가 공개석상에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일과 학업을 함께 하는 과정에서 제 잘못이 있었다"면서 "잘 보이며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이 있었다"고 그동안의 허위 이력 논란에 대해 일 부 인정했다. 이어 "그리치 말았어야 했는데 돌이켜

보니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었다.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이고 불찰"이라며 "부디 용서해달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을 향한 남편의 뜻에 제가 어려움이 될까 늘 조마조마하다. 저 때문에 남편이 비난받는 현실에 너무 가슴이 무너진다"며 "과거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조용히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다"며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17일 사과문을 통해 "제 아내와 관련된 논란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논란이 완전히 수그러들지 않자 부인인 김씨가 직접 대국민사과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씨의 대국민 사과와 관련, "그동안 제기된 김건희씨의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남영희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의 사과가 윤석열 후보 부부의 진심이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김씨는) 사과가 아니라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사과도 진정성 있는 사과가 아니라 국민을 기만할 쇼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본인의 허위경력으로 인해 피해를 봤을 피해자들에게 대한 사과는 한 마디도 없었다"며 "주기조작 사건, 저축은행 잔고증명 위조 의혹, 코바나컨텐츠 불법 협찬 의혹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도 사과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안민석 의원은 "김씨는 무엇을 잘못했다는 것인 지조차 밝히지 않았다"며 "허위 조작 의혹에 대해 본인의 입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당연한데, 이를 회피했다"고 질타했다.

청년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 이동학 최고위원은 "뺑뺑이 사건. 사과문의 내용, 전달력 모두 실패했다. 안 하느라 못한 사과"라고 비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 발표를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랑과 감사의 67년  
1954 ~ 2021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 Passion Vision Truth

열정  
꿈  
진리로 흥망번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 2022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 신·편입생모집

#### 학부 정시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학 과	모 집 인 원	
		정 시	정 원 외
인문사회	신 학 과	31	
	한국어교육학과	2	
	복지상담융합학부	19	
사범	유아교육과	6	
	예 능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 ·실용음악학 전공	12	
총 계		70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21. 12. 30(목) ~ 2022. 1. 3(월)  
· 전 형 일 : 2022. 1. 10(월)

#### 학부 편입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학과	모 집 인 원		
		정원내	정 원 외	
		일반편입 (3학년)	학사편입 (3학년)	우체원고시 양성 관련학과 전문학사취득 소지자 편입학(3학년)
인문	신 학 과	○○	○	
	한국어교육학과	○		
사회	복지상담융합학부	○○	○	
사범	유아교육과	○		○
예능	음악학부	○○		

▶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22. 1. 10(월) ~ 1. 21(금)  
· 전 형 일 : 2022. 1. 25(화)

입학문의 ▶ 학부 062) 605-1114 / 대학원 062) 605-1115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백제로 36